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연구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 연계 방안

조연주*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언어적응교육 과정을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고찰하고, 요구분석과 상황분석을 통해 실천적인 교수요목을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언어는 국어와 한국어의 양면적 특성을 보이는데, 이것이 디딤돌이 되어 두 학제 간 상승효과를 얻기보다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 변인과 학습 목적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교육을 ‘이주자 대상 정착 목적 한국어 교육’으로 규정하고 실천 가능한 교수요목을 설계하였다. 학습자 요구분석과 5개 기관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 과정 분석을 토대로 ‘문화, 단어와 표현, 발음과 억양, 언어 예절과 화법(화행), 활동 및 과제’의 5개 교육내용의 범주를 설정하고,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과 연계 가능한 교수요목을 설계하였다.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지 못한 점과 정착의 초기 단계에만 초점을 맞춘 점은 본고의 한계로 남는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실태에 관한 연구는 다소 있으나 교육적·실천적 접근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의 언어교육을 학문의 한 분야로 구분하고 적용 가능한 교수요목을 설계함으로써 후속 연구의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본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 한국어 교육, 국어 교육, 정착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교수요목, 교육내용, 교수요목 설계

*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1. 서론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언어적응교육 과정을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고찰하고, 요구분석과 상황분석을 통해 실천적인 교수요목을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리 온 통일’이라 불리는 북한이탈주민¹⁾은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로 넘어오기 시작하다가 고난의 행군²⁾ 시기를 거치며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2010년 11월에 2만 명을 넘어섰고, 2018년 9월 말 현재 32,147명에 이르렀다.³⁾ 이처럼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정부의 정책도 변화를 거듭하였다. 먼저 국가유

1) 탈북한 북한인들은 ‘귀순자’, ‘귀순용사’, ‘탈북민’, ‘새터민’ 등으로 불리다가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4년 11월 29일)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기존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어렵고 힘들게 북한 체제를 탈출한 배경이 문한다는 이유와 다문화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에 이의를 느낀’ 탈북인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여 공중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나영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검토,” 『민족연구』, 66권(2016), 27쪽}.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서의 ‘이탈’이라는 단어가 주는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뉘앙스와 특정한 부류의 소수자들을 하나의 명칭으로 호명할 때 갖게 되는 낙인효과와 문제로 타자화의 위험성이 있어 이 용어에 대해서도 의의가 제기되고 있다이수정, 2011 재인용; 이용승, “북한이탈주민 통합,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민족연구』, 66권(2016), 7쪽}.

2)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까지 100여 일간 김일성이 이끄는 항일빨치산이 중국 지린성에서 압록강 연안 국경지대까지 일본군의 추격을 뿌리치고 감행한 행군이다. 고난의 행군이 국가적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구호로 다시 등장한 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경제난과 최악의 수해로 아사자가 속출한 1990년대 중반이다. 다음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1g3611n0>(검색일: 2018년 4월 1일).

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현황(2018년 9월 말 입국자 기준),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self>(검색일: 2018년 10월 27일).

공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던 ‘원호대상자’에서 ‘귀순 용사’로, 다시 ‘생활보호대상자’로, 현재는 ‘자립과 자활의 대상’⁴⁾으로 구분되어 남한인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제 북한이탈주민의 수용 여부는 통일 한국의 통합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어 사회 전반에 통합(integration)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⁵⁾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의 사회 적응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이 평가이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로의 이주 과정에서 결혼이나 노동을 매개로 한국에 온 외국 이주자들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⁶⁾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는 사회 체제의 차이, 남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 경제적 어려움,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염려, 심리적·정서적 불안, 건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주된 요인으로 전문가의 98%는 ‘언어’를 들고 있다.⁷⁾

물론 남한어와 북한어⁸⁾는 계열이 같은 한 민족 언어이기 때문에

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 과정,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refugeesPolicy/status/history/>(검색일: 2018년 10월 14일).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7년 1월 14일에 제정된 이후 4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6) 김하수·조태린,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 16권 1호(2008), 319~362쪽.

7)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2016), 44쪽.

8) 일반적으로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개별 언어에 ‘어(語)’를 붙이고 민족어를 가리킬 때는 ‘국어’나 ‘한국어’의 형태를 사용하는데, 최근 북한의 변종(variety)만을 ‘북한어’라고 부르고 ‘한국어’는 남한의 변종을 가리키는 쓰임새로 사용되면서 ‘한국어’가 아우르는 의미 영역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김주성, “북한이탈주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경일⁹⁾에서 지적한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정에 더 큰 가로막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동일한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남한 땅에 발을 내디뎠다가, 실제 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신조어, 동형이의어, 이형동의어, 외래어 및 외국어, 한자어, 줄임말, 생소한 발음과 억양, 서로 다른 화행과 문화 등으로 인해 모어 속의 소외감을 느끼며 이질적인 언어 환경에 놓였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차라리 외국서 살면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말도 새로 배우고, 사는 거 다시 배우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도 한국말하고 얼굴도 같은데 완전히 새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 압박감이 상당히 큰 거예요.¹⁰⁾

(이) 예배에서 남한 출신 한 목사는 ‘생명을 걸고 남한에 찾아온 탈북자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민족도 같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조금만 노력하면 자유 대한민국에서 큰 꿈을 펼칠 수 있다’고 격려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어 등단한 북한 출신의 목사는 이러한 격려에 대하여 ‘방금 우리는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민족도 같다고 하였지만, 기대를 가지고 내려온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한국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달랐다’고 말하면서 답사의 운을 땀다.¹¹⁾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2쪽. 이에 본고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남한어, 북한어로 대조하여 기술하였다.

9) 정경일,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실태,” 『사회언어학』, 10권 1호(2002), 253~274쪽.

10) 김현경, 『현상학으로 바라본 새터민(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경험』[한국학술정보(주), 2009], 134쪽.

11) 김주성,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그러나 제2외국어 이주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여러 형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이탈주민은 언어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듯하다. 현재 이들을 위한 공식적인 언어적응교육은 하나원이 전부다. 차라리 북한이탈주민도 다문화 구성원에 포함하여 동등한 지원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¹²⁾ 하지만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은 민족공동체의 일원이자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상이한 문화와 체제 아래 생활하였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등 다문화 가족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¹³⁾ 배려의 정책이 오히려 소외를 낳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교육을 학문적으로 구분하고 실천 가능한 교육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 구분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고찰하고, 학습자들은 무엇을 요구하며, 현재 그 요구가 언어적응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2차 데이터 조사와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교수요목을 설계할 것이다.

2014), 3쪽.

12) 서은숙,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문화(이주민) 통합 교육 방향,” 『윤리연구』, 97권(2014), 332~360쪽.

13) 통일부,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2018), 10쪽.

2.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 구분에 관한 논의

1)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의 양면적 특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적응교육 교수요목을 설계하기 위해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교육을 국어와 한국어, 어느 교육 분야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국적자이자 이주자’인 이들의 위상에서 가늠할 수 있듯이, 사용하는 언어 또한 국어 교육의 특성과 한국어 교육의 특성을 동시에 띠고 있다.¹⁴⁾ 문제는 그래서 두 학제 간 포용적인 태도로 교육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국립국어원¹⁵⁾에서 실시한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의 통일 대비 언어 정책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을 보면, 언어 관련 기초 자료 조사 강화를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부 설명을 달고 있다.

- 국어학자들이 북한어를 한국어로 인식하지 않는다.
- 말뭉치 연구에서 북한어를 말뭉치에 함께 넣어 연구하지 않는 등 북한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 북한어를 연구하는 연구 기관도 없다. 북한 문제 연구소는 많아도 대부분 정치 연구소(이다).

한국어 교육 쪽도 통용되는 정의를 볼 때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

14) 신명선 외,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박이정, 2012), 16~17쪽.

15)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 164쪽.

육이 속할 곳이 분명치 않아 보인다.

- 한국어 교육은 재외동포¹⁶⁾를 포함하여 외국인¹⁷⁾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다.¹⁸⁾
- 한국어 교육의 범위는 크게 외국인과 재외동포로 나눌 수 있다.¹⁹⁾

이렇듯 학제 간 모호한 태도는 줄고²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남한인 206명을 대상으로 평소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교육 분류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45.3%가 ‘방언 화자의 표준어 교육’이라 답하였고, ‘한국어 교육’은 35.0%, ‘국어 교육’은 18.2%를 차지했다. 방언 화자의 표준어 교육은 모어 화자의 교육이라는 면에서 국어 교육에 속한다 할 수 있지만, 접촉 국민²¹⁾을 포함한 남한인 응답자들의

1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999>(검색일: 2018년 7월 17일). ‘재외동포’는 법적으로 ‘재외(在外)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된다. 전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후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자’를 가리킨다.

17) 다음백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6a2472a>(검색일: 2018년 7월 17일). ‘외국인’은 ‘국내법과 국제법상 외국에서 출생했지만 당해 국가에 거주하는 자로서, 혈통이나 귀화에 의해 당해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여전히 그 외국 국적을 지니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18) 박갑수, 『한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역락, 2013), 15쪽.

19) 조현용,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우리말연구』, 54권(2018), 222쪽.

20) 조연주, “남북 언어통합에 관한 연령층별 의식조사연구,” 『현대북한연구』, 20권 3호(2017), 180~227쪽.

21) 206명의 응답자 중 31.2%에 해당하는 64명이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만난 적이

<표 1> 한국어 유형

국내외 구분	한국어 유형	비고
국내 다중언어 사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이 배우는 한국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한국어
	방언으로서의 한국어	분단 문제와 연결된 한국어, 통일을 염두에 둔 한국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국어
국외 다중언어 사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이 배우는 한국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유학생, 이민 1세대, 1.5세대 한국어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고려어, 조선어, 교민 한국어 등

의식 속에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교육은 국어 교육보다 한국어 교육에 더 가깝게 인식되는 것이다.

권순희²²⁾에서는 이렇듯 ‘방언 화자의 표준어 교육이지만 한국어 교육에 가까운’ 북한이탈주민의 언어를 ‘방언으로서의 한국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물론 상기 연구에서 연구자 스스로 덧붙인 것처럼 ‘방언으로서의 한국어’라는 유형 구분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를 ‘한국의 말을 가르치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변화하는 학습자 변인에 따라 유형을 세분한 점은 한국어 교육의 외연(外延)적 확대가 요구되는 지금 시의적절해 보인다.

있다고(접촉 국민) 답하였다(조연주, 위의 글).

22) 권순희,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위상,” 『우리말연구』, 39권 (2014), 5~24쪽.

2) 한국어 교육의 외연적 확대와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

한국어 교육의 이러한 외연적 확대는 ‘2017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²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동 개정안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였는데,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는 학생’을 교육 대상으로 삼거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학생’도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예로 중도입국 학생이나 외국인가정 자녀 등과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학습자를 들고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예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외국 출신 부모 또는 모의 제한된 한국어 수준에 영향을 받은 학생, 제3국 등을 통한 오랜 탈북 과정을 거쳐 입국한 학생 등을 들고 있다. 탈북 자녀들을 한국어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처럼 학습자 변인이 다변화하면서 학습 목적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어는 학습 목적에 따라 크게 ‘일반 목적 한국어(Korean for General Purpose: KGP)’와 ‘특수 목적 한국어(Korean for Specific Purpose: KSP)’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 목적 한국어’는 한국어가 통용되는 일반적 사회생활을 위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이고, ‘특수 목적 한국어’는 한국어가 통용되는 학업, 직업과 같은 전문 분야의 생활을 위한 한국어 의사소통이라든가, 다양한 특수 목적의 한국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의 한국어를 통칭한다.²⁴⁾ 최근 한국

23) 교육부, ‘한국어 교육과정’(2017년 개정),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 별책 43, 1쪽.

24) 박갑수, “한국어교육의 현실과 미래: 한국어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국학연구총론』, 6권(2010), 37~72쪽.

사회에 다양한 학습자가 등장하면서 이 분야가 점점 세분화되고 있다.

이윤해(2014)에서는 특수 목적 한국어를 학문을 위한 한국어, 직업을 위한 한국어, 기타 목적 한국어로 구분한 후, 다시 기타 목적 한국어를 재외동포 한국어, 관광 한국어, 선교 한국어, 외교 한국어, 군사 한국어, 통·번역 한국어, 이주민 한국어, 입양인 한국어, 탈북동포 한국어, 귀국자 자녀 한국어, 관광 가이드 목적 한국어 등으로 세분하였다. 하지만 상기 구분은 대상 간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관광 가이드 목적 한국어’는 직업 목적 한국어 범주에 넣어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탈북동포(북한이탈주민)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주민²⁵⁾이므로 ‘이주민 한국어’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학자 간 한국어 구분의 양상은 다를 수 있지만, 구분을 위해 공통으로 사용한 잣대는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된다. 첫째는 학습자 변인이고 두 번째는 학습 목적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중도입국자녀인가? 결혼이주여성인가? 북한이탈주민인가? 혹은 이들의 학습 목적이 기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인가? 직업 취득인가? 정착인가? 등을 통해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역시 학습자 변인 규정과 학습 목적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교육을, 북한이탈주민은 ‘이주자’라는 점(학습자), 그리고 남한 사회로 이주해 와 ‘정착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요구한다는 점(학습

25) Chambers(양수경, 2013: 8 재인용)에서는 이주자를 언어를 기준으로 제2외국어 이주자(second-language immigrant)와 방언 이주자(dialect immigrant)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이나 중도 입국 자녀 등은 전자에 속하고, 북한이탈주민은 후자에 속한다고 본다.

목적)에서 ‘이주자를 위한 정착 목적 한국어 교육²⁶⁾’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교수요목을 설계하려 한다.

3. 교수요목 설계

1) 이론적 배경

앞에서 우리는 교육 대상을 ‘이주자로서 북한이탈주민’으로 정하고 교육의 목적을 ‘정착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에 따른 교육내용 범주를 설정하고, 그 범주 안에서 교육할 내용을 선정하여 실제적인 교수요목을 설계할 것이다.

교수요목(教授要目, syllabus)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교육과정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데²⁷⁾ 이 용어는 어원상 교육과정(教育課程, curriculum)과 동의어로서, 학생이 거쳐 나가야 하는 일련의 과정(course of study)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²⁸⁾ 이러한 어원을 근거로 강현석·주동범(2004)에서는 ‘교육과정’은 ‘curriculum’으로, ‘교수요목’은 ‘course of study’로, 그리고 ‘강의요목’은 ‘syllabus’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 과정이 아

26) ‘정착 목적 한국어’라는 용어는, ‘한국 내에서 정착하여 거주하면서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초적인 생존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라는 뜻으로 심혜령(2012)이 ‘정착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콘텐츠 개발 방향’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본고에서 차용하였다.

27) 박영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월인, 2002); 김정숙, “통합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4권 3호(2003), 119~143쪽.

28)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정학 용어 대사전』(학지사, 2017).

<표 2> 교육과정과 교수요목 절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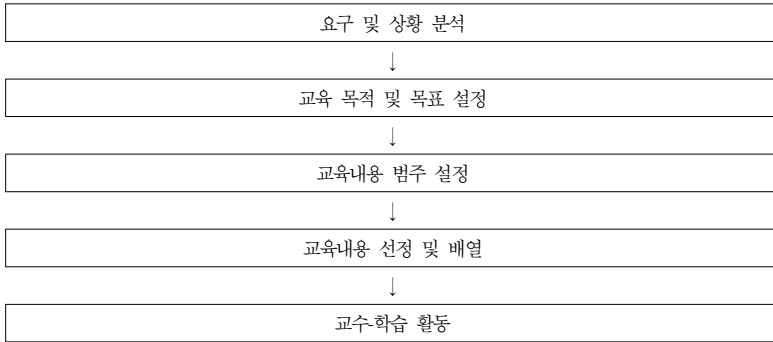
교육과정 개발 절차		교수요목 설계 절차	
Taba(1962)*	김정숙(2003)	박영순 (2002)	강승혜 외(2010)
요구분석	요구 조사	학습자의 요구 조사	요구 조사 분석
↓	↓	↓	↓
목표설정	교육 목표 설정	교육 목적 및 목표 설정	교육 목적 및 목표 설정
↓	↓	↓	↓
내용선정 및 조직	교수요목 내용 및 범주 설정	교육내용의 범주 설정	교육내용 선정 및 방법 결정
↓	↓	↓	↓
학습활동 선정 및 조직	교육내용 배열 및 조직	교육내용 선정 및 방법 결정	교수-학습 활동
↓	↓	↓	↓
평가 내용과 방법 선정	평가 방법 설계	교육내용의 배열 및 조직	교육 평가
		↓	
		평가 방법 설계	

* 강현화·이미혜, 『한국어교육론』(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재인용.

직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과정(course)을 갖추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강의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본고는 ‘강의요목’의 의미를 포함한 ‘교수요목(syllabus)’의 개념을 사용하려 한다.

<표 2>에서 보듯이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와 교수요목의 설계 절차는 큰 틀에서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교육 활동에 대한 계획, 실행, 관리, 평가, 행정까지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교수요목은 교육내용의 선정과 배열에 맞추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등급화하는 협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한국교육과정학회, 2017). 또한, 교수요목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교육의 실제적인 질문인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해당하

<표 3>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절차



는 교육내용의 선정 및 배열로, 전통적인 교수요목에서는 평가 부분을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²⁹⁾ 이 연구에서는 상기 모형들을 수정·보완하여 <표 3>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절차의 첫 단계인 ‘요구 및 상황분석’에서 ‘요구분석’은 최근에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언어의식조사 보고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별도로 요구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한다.³⁰⁾ 그리고 ‘상황분석’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적응교육을 시행하는 5개의 기관의 교육내용을 고찰하여, 학습자들의 요구가 실제 교육에서 어느 정도로 반영되고 있는지 분석하겠다. 상기 교수요목 설계 절차 중, 본 연구는 ‘교육내용 선정 및 배열’까지만 다루고 실제적인 ‘교수·학습’ 활동 결과는 포함하지 않았음을 밝힌다.³¹⁾

29) 신미영,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한 개념·기능 영어 교수요목 설계: 한국 중학교 과정을 중심으로”(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250쪽.

30)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2016).

31) 연구자는 현재 이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요목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표준어교실 ‘교수·학습’ 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며(2018년 9월 29일~11월 10일) 수업 종료 후 운영 사례 결과를 후속 연구로 발표할 계획이다.

2) 요구분석

국립국어원에서 일반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접촉국민, 전문가의 네 집단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일반인,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10명 중 8명은 ‘그렇다’고 답했다.³²⁾

별도로 진행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94%를 차지하여 위의 세 집단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여줬다.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느 분야를 더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교육의 범주에 관해 묻는 질문에서는 네 집단의 답변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일반인과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발음과 억양’이 각각 45.7%, 55.5%로 가장 높았고, 접촉국민의 경우는 ‘단어와 표현(34.9%)’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전문가 조사에서는 ‘사회·문화적 지식(29.8%)’이 가장 높았다.³³⁾

전문가 조사결과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문화적 지

<표 4>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 교육의 필요성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일반인	(2,021)	1.3	17.5	66.5	14.7	100.0
접촉국민	(200)	0.5	13.5	66.0	20.0	100.0
북한이탈주민	(305)	1.6	18.0	39.7	40.7	100.0

문: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2)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 128쪽.

33) 국립국어원, 같은 글, 129쪽.

< 표 5 >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 교육의 필요성

구분	사례수 (명)	발음과 억양	단어와 표현	사회· 문화적 지식	언어 예절과 화법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일반인	(1,641)	45.7	30.8	13.7	9.6	0.1	0.0	100.0
접촉국민	(172)	24.4	34.9	17.4	22.7	0.6	0.0	100.0
북한이탈 주민	(245)	55.5	13.5	15.5	15.1	0.0	0.4	100.0

문: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을 더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식’(29.8%), ‘언어 예절과 화법’(27.7%), ‘발음과 억양’(21.3%), ‘단어와 표현’(19.1%) 순서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발음이나 억양’ 그리고 ‘단어나 표현’으로 대표되는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보다, 오히려 ‘사회·문화지식’, ‘언어 예절과 화법’ 같은 문화적·담화적 의사소통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습자의 ‘요구’와 전문가가 생각하는 학습자 ‘필요’ 사이의 견해 차이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요구분석(needs analysis)’에서 ‘needs’가 ‘요구’ 또는 ‘필요’로 번역하기도 하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이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찾아내어, 요구와 필요가 충족되는 교육내용 범주를 설정해야겠다.

3) 상황분석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 학습자의 요구와 전문가가 판단하는 필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어적응교육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각각의 교육내용을 분석해 보려 한다.

(1) 분석 대상 및 범주

상술한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언어는 거의 전 사회 영역의 매개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매우 크지만, 이들을 위한 언어적응교육 과정은 부족한 현실이다.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에 강좌 명칭을 ‘국어문화학교 특별 교육과정’,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 커리큘럼’ 등 ‘교육과정’, 즉 ‘커리큘럼(curriculum)’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육할 내용을 선정하여 배열한 ‘교수요목(syllabus)’에 더 가깝다. 또한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이나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의 경우, 언어적응교육을 독립적인 수업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 내 일부로 포함하고 있어, 언어적응교육 상황을 분석할 적절한 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실의 문제점이 바로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표 6>과 같이 분석 대상을 선정해 보았다.

상기 기관은 선정 기준은 교육과정의 연속성, 교육 운영기관의 신뢰성, 교육 정보의 접근성이다. 상술한 것처럼 북한이탈주민 수업을 하는 기관이 많지 않고 대개 일회성 발음 교실 형식으로 끝나는 경향이

<표 6>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 시행 기관 및 언어적응교육 과정

언어 사용 환경	시행 기관	언어적응교육 과정
대부분 북한어 사용 (일부 화자 남한어 사용)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내 언어 수업
남한어 사용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내 언어 수업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특별 교육 과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스피치교육
	대학-유관기관 연계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

<표 7> 기관별 상황분석 참고자료

기관명	참고자료
하나원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보도자료
지역적응센터	2018 지역적응센터 운영 매뉴얼, 서울O부하나센터 지역적응교육 매뉴얼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국립국어원의 새터민 대상 사업 추진 현황' 자료,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교사 연수 교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누리집, 스피치교육 공고문
대학-유관기관	부산외국어대학교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을 위한 발음, 억양 교육 실천사례 특성분석' 논문

있는데, <표 7>의 기관들은 2차 이상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연속성). 더불어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정부 산하 기관 혹은 전문 교육 기관으로 기관 누리집이나 보도자료, 선행연구 등을 통해 상기 기관의 교육 정보를 검토할 수 있었고(신뢰성), 이로 인해 관련 자료 수집이 가능하였다(접근성). 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 과정 분석을 위해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 운영기관별 특성과 교육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5개 기관의 교육내용을 표로 비교·정리하여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①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원은 언어적응교육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전체 교육 안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차수는 구분할 수 없지만,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의 첫 관문이며, 가장 연속적으로 언어

<표 8>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406시간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51시간)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공통103시간, 특화 70시간)
- 심리검사·상담 - 건강검진, 진료		- 적성검사, 진로지도 - 진로설계 프로그램 - 기초직업적응훈련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 역사·문화·생활법률 - 현장체험	- 정착지원제도 안내 - 정착의지 함양 교육	- Life-Plan 종합안내 - 인생 전반 5대 분야 (재무, 가족, 취업, 학업, 건강) - Life-Plan 설계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 (공동 97시간)	초기 정착지원(58시간)	생애설계 프로그램(27시간)

적응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찰할 가치가 있다.

하나원은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정서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정규 프로그램은 406시간으로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 초기 정착지원, 생애 설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언어’는 이 정규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다. 언어는 운전, 컴퓨터, 노래교실, 부모교실, 영어 등과 함께 별도의 자율 참여형 보충 프로그램(368시간)에 포함되어 있어 전체 교육내용 중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³⁴⁾ 상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주제별로 언어교육을 접목하여 언어와 문화, 언어와 사회 지식을 결합한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예,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의 주제와 ‘직업 관련 단

34) 2017 개편 전 하나원 수업 구성을 보면 총 420시간 중 언어교육이 차지하는 시수는 남북한 언어 비교(3시간), 표준 발음 연습(3시간), 기초 영어(2시간), 시사 영어(4시간), 외래어(12시간), 상용한자(5시간)으로 영어와 한자를 포함해서 29시간으로 알려졌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현황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어 및 표현’, ‘전화예절’, ‘호칭’, ‘인사하기’, ‘높임말’, ‘거절하기’, ‘감사하기’ 등의 언어 예절 및 화법 등을 결합) 언어를 별개로 구분한 것이 아쉽다. 언어교육을 비롯하여 하나원 사회집중교육 과정은 구체적인 교육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수업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2018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생활’을 주교재로 하며 어휘·표현 학습, 발음·억양 교정, 사회 언어 학습을 교육내용으로 삼는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원에 거주하는 시기는, 일부 남한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직행’이나 ‘완행’³⁵⁾으로 남한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께 머무르며 북한말을 공유하는 북한어 환경이기 때문에, 남북 언어 차이를 크게 실감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탈북 과정에서 온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후유증, 미 합류 가족에 대한 염려, 퇴소 이후 남한 생활에 대한 걱정 등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언어적응교육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남한에 먼저 정착한 가족이 있어 조기 퇴소를 한 경우에는 언어적응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남한 사회로 진출하는 사례도 있어³⁶⁾ 실제로 남북한 언어 차이를 느끼며 언어적응교육을 요구하는 시기는 거주지에 최초 편입되는 지역적응센터부터라 할 수 있다.

②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센터는 하나원 퇴소 이후 주택을 배정받아 거주지로 최초

35)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온 탈북민(‘직행’)과 중국, 태국 등 제3국을 경유해서 온 탈북민(‘완행’)을 가리키는 은어이다.

36) 연구자가 확인한 결과 2000년 중·후반에는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남한에 가족이 있어 신분 확인이 가능한 자들은 조기 퇴소를 시켰으나 지금은 전원 12주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표 9> 지역적응센터 단계별 한국어 교육내용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적 한국어 교육 실시

세부영역	내용	비고
1단계	발음 교정, 기초적인 단어 및 문장, 다양한 표현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어교육 등 일상적인 의사소통 가능하도록 교육	
2단계	구체적이고 폭넓은 의사소통 가능 수준의 교육	

진입한 북한이탈주민을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초기집중교육과 사후 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2018년 8월 기준 전국에 25개의(서울 4, 경기 6,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2,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적응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하나센터’라는 대외 별칭을 사용하고 있다.³⁷⁾ 이곳에서 시행하는 초기집중교육은 8일(9일) 동안 총 50시간(기본교육프로그램 30시간 +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2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육과정에서도 ‘언어’는 주 교육내용이 아닌 ‘기타 교육 및 활동 지원’에 포함되어 있다. 2018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매뉴얼(통일부·남북하나재단, 2018)을 보면 한국어 교육을 1, 2단계로 구분하고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적 한국어 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언어 교육에 할애된 시간이나 교육 장소, 전문 교사, 교재 등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천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덧붙여 연구자가 일부 지역적응센터 직원에게 자문한 결과 초기집중교육이 이루어지는 8일(9일) 동안 주택계약, 주민센터 방문 업무, 생활용품 구입, 휴대폰 개통, 은행 계좌 개설, 지역안내 등 여러 가지

37)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customer_support/counselor_list.jsp(검색일: 2018년 10월 29일).

일들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언어적응교육을 위한 시간을 찾기가 어렵고, 혹 교육이 이루어지더라도 대개는 센터 직원이 어휘를 설명해주는 정도라고 한다.

언급한바 언어적응교육은 주 교육 과목이 아니고 기타 교육에 속한 과목이기 때문에 지역적응센터에 따라 운영상 차이가 있다. 서울○부하나센터는 자체적으로 ‘지역적응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어 언어적응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매뉴얼 해당 편의 ‘언어클리닉’이라는 강의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발음과 억양이 교육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서로 차이를 보이는 자·모음의 음가부터 단어와 문장의 억양까지 남북한 차이를 보이는 발음과 억양을 비교적 상세히 가르치고 있었는데, 교육 자료는 국립국어원의 ‘새터민³⁸⁾이 배우는 표준발음 교실’³⁹⁾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③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특별 교육과정)

국립국어원은 국어 발전을 위한 어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이다. 본 기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실태 조사 사업을 비롯하여⁴⁰⁾ 정착 2년 이내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발음·억양 학습 온라인 콘텐츠와 어휘 학습 교재를 개발했다.

38) 당시 통용되던 탈북민 호칭은 ‘새터민’이었다. 용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각주 (1)를 참고하기 바란다.

39)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발음 및 억양 교육 자료이다(검색일 2018.10.15.), <http://edu.korean.go.kr/dp/banner/pronounce/home.html>.

40) 정경일,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 조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2001); 문금현 외,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2005).

<표 10> 국어문화학교 특별 교육과정 구성 및 강사 소개

강좌명	시수	내용	강사	강사 약력
남북한 어문 규정 차이	2회 4시간	어문 규정의 남북한 차이	정○○	국어국문학 박사
표준어의 어휘와 표현	3회 6시간	새터민이 모르는 남한 어휘와 문화 개념어 등 설명	강○○	언어학과 박사
표준어의 발음과 억양	3회 6시간	표준어의 발음과 담화 상황에 따른 억양 등 강의·실습	양○○	국어교육학과 박사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표준어 실습	3회 6시간	표준어의 발음과 억양 등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실습	김○○	교통방송 아나운서
4강좌	11회 22시간		4명	모두 11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적응교육을 위해서는 국어문화학교 특별 교육과정으로 7차의(새터민 교사 특별과정 2회 포함) 언어교육 과정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7차 수업 모두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진행되었고, 연구자가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최근에는 진행하는 수업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일정 인원의 학습자를 모집하여 교사를 신청하면 파견하는, 개방적이고 신축적인 운영 형태를 가지고 있어 수업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해당 교육과정의 구성은 <표 10>과 같다. 강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어와 언어 전문가, 그리고 아나운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체 11회 22시간 중 절반 이상(6회 12시간)을 발음과 억양 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교육내용 중 어휘 교육에서 문화 개념어를 가르치고, 남북한 어문 규정 차이를 가르치는 것이 특기할만하다.

④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스피치교육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10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대외 별칭으로 ‘남북하나재단’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과정에서 말씨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경감할 목적으로 4차째 ‘스피치 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과정을 안내하는 공고문을 보면, 시수는 매회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 총 5회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내용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발음과 억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발음, 억양, 외래어 교육, 실제 상황별 대화 중심활동, 발성 훈련, 표준 화법 구사 훈련, 말하기 태도 등 실질적인 개별 교정지도’ 등이 있다.

강사는 국어나 한국어 교사가 아닌 ‘전·현직 아나운서’를 기용하고 있어 ‘외래어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일반 스피치 학원과 유사한 과정의 수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11> 북한이탈주민재단 2018년 스피치교육 4차 교육생 공고문 주요 내용

교육기간	2018년 9월 1일~10월 6일(추석 연휴 9월 22일 휴강)
일시	매주 토요일 09:30~14:00 (점심 포함)
장소	스피치O루
대상	북한이탈주민 25명
강사	전·현직 아나운서
내용	- 표준한국어 스피치, 발음, 억양, 외래어 교육 - 실제 상황별 대화 중심활동, 발성훈련, 표준 화법 구사 훈련 - 말하기 태도 등 실질적인 개별 교정 지도

⑤ 대학-유관기관 연계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사업단을 비롯하여 부산시청, 부산하나센터(YWCA), 기장경찰서,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성우희망재단 등 총 6개의 산학관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수업 활동을 위하여 한국어 교사 1명이 보조교사 4명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사례 연구에 실린 교육내용은 <표 12>와 같다.⁴¹⁾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라는 과정명에서 가늠할 수 있듯이, 표준

<표 12>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 커리큘럼 예

○ 목표: 한국어 표준 발음 및 억양을 익혀 실제 사용할 수 있다.

기간	강좌 개요	강좌의 목표	활동
11/19 (2H)	강좌 소개 사전 평가 표준 억양	* 프로그램 설명 * 사전 평가 1) 표준어 억양 1	- Wavesufer 활용 억양 진단 - 학습자별 발음 오류 항목 분석 - 새도임을 활용한 억양 연습
11/24 (2H)	표준 억양 모음 발음	1) 표준어 억양 2 2) / ㅏ, ㅑ/, /ㅡ, ㅓ/ 구분	- 광고 더빙하기 - 혀 꼬기 놀이(tongue twister)
11/26 (2H)	표준 억양 자음 발음	1) 표준어 억양 3 2) 평음, 경음, 격음 구분	- 노래를 활용한 발음 연습 - 게임(단어 전달하기)
12/1 (2H)	표준 억양 음운 규칙1	1) 표준어 억양 4 2) 구개음화, ㄴ 첨가	- 드라마 더빙을 통한 발음 연습 - 교육 연극
12/3 (2H)	표준 억양 음운 규칙2	1) 표준어 억양 5 2) 두음법칙	- 드라마 더빙을 통한 발음 연습 - 교육 연극
12/8 (2H)	표준 억양 사후 평가	1) 부정어 ‘안’ 억양의 차이 * 사후평가	- 새도임을 활용한 억양 연습 - Wavesufer 활용 억양 진단 - 개별적 피드백 제공

41) 조완철·조위수,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발음·억양 교육 실천사례 특성 분석,” 『현대북한연구』, 21권 1호(2018), 208~241쪽.

<표 13> 기관별 교육내용 비교

과정명 교육 내용	사회적응 교육	초기 집중교육	국어문화 학교(특별)	스피치교육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
발음 및 억양	○	○	○	○	○
어휘 및 표현	○	○	○	○	×
언어 예절과 화법(화행)	○	×	×	×	×
어문규정	×	×	×	×	×
기타	사회 언어, 기초 영어			상황별 대화, 발성 훈련, 말하기 태도	

억양과 발음이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 본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강의에 따른 활동 내용도 제시하고 있는데, 광고더빙, 게임, 교육 연극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려 했다는 점이 괄목할만하다. 더불어 주교사 외에 보조교사 4명을 지원하여 학습자들의 개별 활동을 지원한 것도 앞선 기관들과의 차별점이라 하겠다.

이상으로 상술한 기관들에서 교육내용만을 추출하여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기관에 따라 사회 언어나, 기초 영어 등을 가르침으로써 사회·문화 지식을 가르치려는 시도들을 찾아볼 수 있으나, 거의 모든 기관의 교육 내용 범주가 발음과 억양, 그리고 어휘 및 표현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에 할애된 시간까지 고려하면 발음과 억양이 주를 이룬다 하겠다. 다시 말해, 앞 절에서 살펴본 학습자 요구 및 필요 영역들(발음과 억양, 단어와 표현, 사회·문화적 지식, 언어 예절과 화법 등)이 고르게 반영되지 못하고, 발음과 억양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일견 학습자 요구분석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앞서 다룬 것처럼 국립국어원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의 55.5%가 발음과 억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86.2%는 남한 사람처럼 말씨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81.3%는 실제로 남한 사람처럼 말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응답하였다.⁴²⁾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발음과 억양을 교정하려는 동기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남한 생활 정착이 아니라 말씨로 인한 남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요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천편 일률적인 발음·억양 수업을 편성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발음과 억양은 ‘교정’해야 할 ‘오류’가 아니라 소중한 우리말 지역 방언의 하나임을 교사와 학생들 모두 인식하고, 의사소통에 실제적인 장애를 가져오는 발음과 억양을 지도하는 동시에 남한인들에게는 북한말에 귀를 익숙하게 하는 훈련이 수반된다면 발음과 억양은 더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 범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박종갑(2007)에서 지적한 것처럼, 남한 사회에서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북한말을 교정함으로써 통합을 이루려는 남한 중심의 시각을 내려놓고,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에게 남한말이 얼마나 생소할까를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한 때이다. 덧붙여 이러한 태도와 함께 북한말과 문화, 언어교육 분야의 지식을 겸비한 전문교사 양성이 필요해 보인다.

42)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2016), 33쪽.

4) 교육내용 범주 설정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 그리고 상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교육 한국어의 교육내용 범주를 구성하였다.

‘언어 규범’도 남한에서 교육을 받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지만, 본 교수요목은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을 도울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각각의 교육내용 범주 설정 이유와 그에 따른 내용 선정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14>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목적 한국어 교육내용 범주

주제	문화	단어와 표현	발음과 억양	언어 예절과 화법(화행)	활동 및 과제
----	----	--------	--------	---------------	---------

(1) 주제

권오경에서는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해야 하지만 학습자의 흥미만을 위주로 교육내용을 선정하면 교육의 체계성을 흐뜨릴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적 체계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³⁾ 같은 견지에서 본고는 하나원 퇴소 이후 남한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언어 차이로 인한 충격과 불안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과 연계 가능한 교수요목을 설계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2018 북한이탈주민 지역적

43)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419쪽.

<표 15> 북한이탈주민 전입 초기 주요 진행 사항

	사업 흐름	진행 사항	학습 가능 주제
1일 차	지역적응센터 도착	각 거주지 지역별 담당직원 및 전문 상담사와 만남	소개
	주택계약	주택계약	관공서, 주택
	거주지 도착	- 아파트 관리사무소(임대계약, 아파트 내부점검) - 관할 주민센터(주민등록신청, 생계비, 의료비신청)	
	관계 형성	저녁 식사	음식, 식당
	생활용품 구입	- 대형할인매장이용 - 핸드폰 구입 & 개통	물건 사기, 통신
2일 차	지역안내	- 대중교통 이용하기(지하철 노선도, 표/교통카드 구입, 개찰관련, 갈아타는 방법) - 지역 내 은행 위치 확인(각 지역별로 은행 방문하여 입출금 직접 실행)	대중교통, 은행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확인	- 재복, 재중, 하나원에 있을 때 건강상의 문제 및 병원진료 관련 내역에 대해 확인 - 지역적응센터에서 정신건강 및 신체적인 의료진료 탐을 연계하거나, 병원이용을 할 경우 진료 받은 상황 확인	의료 (병원, 약국)
	취업과 교육 관련	- 취업, 직업훈련 원할 시 전문상담사 또는 사업 담당자에게 의뢰 요망 - 주요 취업·교육 관련 기관 방문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추진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업담당자에게 의뢰요망	직장, 교육

주: 통일부·남북하나재단, “2018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메뉴얼”(2018), 42~44쪽.

응센터 업무메뉴얼’을 토대로 상황별 교육 주제를 도출하였다.

지역적응센터의 여건에 따라 상기 나열한 전입 초기 주요 진행 사항의 내용이나 순서는 다를 수 있다. 또 상기 자료는 1일 차, 2일 차로 일정을 나누고 있지만, 첫날 대부분의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8일 혹은 9일에 나눠서 일을 진행할 수도 있다. 선정된 주제와 관련된 단어와 표현을 배우고, 또 상황에 필요한 언어 예절이나 화법(화행) 등을 학습

한다면 학습자의 동기를 고취시키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문화

국립국어원(2016) 교육내용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선택했던 ‘사회·문화적 지식’을 본고에서는 ‘사회’를 포함한 광의적인 개념의 ‘문화’로 명명하였다. 비록 앞서 살펴본 언어교육과정 현황 분석에서 5개 기관 중 ‘문화’를 가르치는 곳은 없었지만, 한국문화연구원(2011)에서도 지적한바, 북한이탈주민들이 언어 장벽의 예로 드는 외래어 문제는 본질적으로 문화 차이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인한 오독이나 오해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범주에 문화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문화는 분리 불가능한 유기적 존재물이며 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깊어 교육을 위한 문화 범주를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 권오경⁴⁴⁾의 분류를 빌리면 다음과 같다.

성취문화: 일상생활, 제도, 예술, 산업기술, 자연상징물

행동문화: 언어, 준어어, 비언어 문화

관념문화: 민족성, 가치관, 정서, 사상, 신앙

지자는 문화를 ‘가치가 내재된 사고체계’와 ‘추성적 문화소가 실현된 행위’ 및 그것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의 구조적 총합으로 정

44)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61쪽.

의하고, 문화지식 중심의 성취문화, 문화행위 중심의 행동문화, 문화인식 중심의 관념문화로 구분한 후 갈래별 대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교수요목 설계는 초기 정착 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성취문화), 거절하기, 칭찬하기, 높임법 등의 언어문화(행동문화)와 한민족으로서 공감의 정서를 형성한 후 남북한의 변천 과정의 이해할 수 있도록 민족의 정서나 민족성 등(관념문화)도 포함하였다. 나아가 한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회복하고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 내용을 설계하였다.

(3) 단어와 표현

단어와 표현 범주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주축으로 어휘를 추출하되,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신명선, 2012),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어휘 1, 2, 3』(권순희 외, 2012),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1, 2』(권순희 외, 2013), 『북한이탈주민 남한 직장 생활 용어집』(권순희 외, 2012), 『남북 필수 용어집』(통일시대 사람들, 2013) 등의 남북 어휘 관련 교재 및 용어집과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 북한어 사전 등을 활용하여 주제 관련 단어와 표현을 수집, 추출하였다.

(4) 발음과 억양

이 범주 역시 주제와 관련하여 발음과 억양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선정하였다. (3)에서 나열한 교재 중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1, 2』(권순희 외, 2013)와 국립국어원 온

라인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발음 교실』, 그리고 부산외국어대학교 ‘보이스트레이닝 아카데미’ 사례 분석 연구 논문을 참고하여 주제와 관련된 단어, 표현을 활용하여 해당 발음과 억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언어적응교육 기관의 교육내용과는 달리 ‘발음과 억양’ 교육이 수업의 주를 이루지는 않는다. 남한인들도 지역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발음과 억양이 다양하게 실현되는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출신 지역과 학습자의 경험(예, 제3국 거주자 등), 개인의 발화 습관 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 상기 열거한 교육 자료들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발음과 억양을 일반화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따라서 본 교수요목에서는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발음(예, 두음법칙)을 위주로 교육내용을 선정하였다.

(5) 언어 예절과 화법(화행)

언어 예절과 화법은 단순한 의사소통 장애가 아니라 사회적 미숙함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예절과 화법의 남북 비교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하였고, 이 역시 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선정하였다. 교육내용 선정을 위해서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국어문화학교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한 생활 표현 익히기’⁴⁵⁾와 북한이탈주민 화법 및 화행에 관한 앞선 연구⁴⁶⁾들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45)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검색일: 2018년 10월 10일). 자료 검색을 위해 강의 수강 신청이 필요하다. http://edu.korean.go.kr/servlet/controller.course.CourseUserServlet?p_process=viewpage&p_coursegubun=class&p_subj=1058&p_year=2017&p_subjseq=0001&p_endgubun=&p_userid=

46) 문금현,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76권(2007), 141~172쪽; 전정미, “새터민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화행 교육 방안 연구:

(6) 활동 및 과제

활동 및 과제는 학습한 내용을 유의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 지역적응센터 진행 사항을 고려하여 교실 내 활동이나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지역적응센터의 여건상 이미 겪은 주제 상황을 후에 학습한다 하더라도(선경험 후학습), 경험을 통한 스기마 형성 혹은 시행착오 상황에 대한 해답 제시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5) 교육내용 선정 및 배열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교수요목 설계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교육내용 선정 및 배열’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내용 범주와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을 설계하였다. 지역적응센터 전입 초기 진행 사항 순서에 맞춰 강의 순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진행 사항이 수업 전에 이루어지는지, 수업 후에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교실 활동 혹은 실전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수업 회차는 초기집중교육이 8~9일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선택 강의가 가능하도록 9회차로 구성하였다.

<표 16>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적응센터 초기집중교육에 맞춰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된 남북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매 수업 도입 부분에서 소개할 남북 문화는 단순히 남북한 간 차이를 비교·설명하는

거절하는 말하기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9권(2010a), 111~138쪽; 전정미, “북한이탈주민의 화행 사용 양상 연구: 칭찬 화행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7권(2010b), 245~272쪽; 전정미, “북한이탈주민의 사과 화행 사용 양상 조사,” 『겨레어문학』, 45권(2010c), 235~260쪽.

<표 16>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

	주제	문화	단어 및 표현, 발음과 억양, 언어 예절 및 화법(화행)	활동/과제
1회	주택	남북의 주거 문화	- 주택 관련 단어 및 표현 - 구럼 다음에 만날까요?('으'와 '우'의 발음) - 사교 표현	- 수업 안내 - 조별 자기소개 및 인사하기 - 주택계약서 작성
2회	은행	남북의 은행 문화	- 은행 관련 단어 및 표현 - 신분증 안 가져왔습니다(부정어 억양). - 거절하기	- 계좌 개설하기 - 현금지급기(ATM) 를 사용하여 입금· 출금·이체하기
3회	물건 사기	남북의 물건 사기	- 물건 사기 관련 단어 및 표현 - 이 가자 좀 바빠 주세요('위'와 '와', '와'와 '아'의 발음) - 요청하기	역할극(1)(교환 및 환불 상황)
4회	식당	남북의 음식	- 식당 관련 단어 및 표현 - 맛있는 음식이 많네요('시'와 '식'의 발음). - 칭찬하기	식당에서 음식 주문 하기(또는 음식 배 달 주문하기)
5회	대중 교통	남북의 교통	- 대중교통 관련 단어 및 표현 - 한 번 리용하는 데 얼마지요?('노'와 '로'의 발음) - 사과하기	- 지하철 노선도 읽기 - 버스 노선도 읽기
6회	통신	남북의 통신	- 통신 관련 단어 및 표현 - 이거 성능이 오픈가요?('어'와 '오'의 발음). - 감사하기	- 휴대폰 개통하기 - 단톡방 만들기
7회	병원	남북의 병원	- 병원의 종류 및 증상 관련 단어 및 표현 - 긴테 오늘 가는 기 아닌가요?('그'와 '게'의 발음) - 전화 예절	역할극(2)(진료 상황- 증상 말하기)
8회	직장	남북의 직장	- 직장 관련 단어 및 표현 - 일 없습네다('에'의 발음) - 호칭 및 높임 표현	- 이력서 쓰기 - 자기 소개서 쓰기 - 모의 면접
9회	교육	남북의 교육	- 교육 관련 단어 및 표현 - 남한 표준어 기본 억양 정리 - 남북한 간 인사말	- 소감발표 - 만족도 조사

것이 아니라, 분단 이전의 한 민족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나 영상을 활용하여 ‘공감’의 정서를 먼저 형성한 후, 분단 이후 남한의 변천사 및 발전상을 세계인의 관점에서 보여줌으로써 한 민족의 자긍심과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일조하고자 했다. ‘단어와 표현’, ‘발음과 억양’, ‘언어 예절 및 화법(화행)은 북한이탈주민의 언어를 지역 방언의 하나로서 소중히 여기는 시선 가운데, 다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교육하려 했다. 끝으로 활동 및 과제는, 만일 지역적응센터에서 초기집중교육 기간에 체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면, 수업 후 이루어지는 모든 진행 사항이 학습자들의 과제고 유의미한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교실 안에서 역할극이나 이력서 쓰기, 모의 면접 등의 활동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유의미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언어교육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 언어의 양면적 특성으로 인해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어느 영역에서도 실천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고,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을 학습자 변인과 학습 목적을 근거로 ‘정착 목적 한국어’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지역적응센터와 연계 가능한 실천적 교수요목을 설계하였다.

설계 과정에서 학습자 요구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 학습자의 ‘요구’와 전문가가 판단하는 학습자 ‘필요’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반수 이상이 발음과 억양을 우선적인 교육

내용으로 요구하는 반면, 전문가는 사회·문화적 지식이나 언어 예절과 화법 등이 더 큰 의사소통의 걸림돌이라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제, 문화, 단어와 표현, 발음과 억양, 언어 예절과 화법(화행), 활동 및 과제로 교육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특히 지역적응센터의 전입 초기 주요 진행 사항을 토대로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는 한편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려 하였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명시적인 학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언저리에 머물던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을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 가능한 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덧붙여 발음과 억양, 단어와 표현 등 언어적 의사소통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교육과정과 달리, 문화와 언어 예절, 화법(화행) 등을 포함하여 문화적·담화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까지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하지만 설계한 교수요목을 실제 교육 현장에 직접 적용하지 못한 점과 정착 단계⁴⁷⁾에 따른 평생교육 차원의 언어교육과정을 논하지 못하고 초기 정착 단계에만 머무른 점은 본고의 한계로 남는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교육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국가와 유관부서의 협력하에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추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

47) 북한이탈주민이 '남한말에 충분히 익숙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 131쪽.

구분 (단위: %)	사례 수 (명)	1년 이내	2~3년	4~5년	6~7년	8~9년	10년 이상	계
북한이탈주민	(305)	2.0	17.0	29.8	11.8	15.76	23.6	100

고 구체적인 교육과정들이 개발되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정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일 한국의 언어통합에도 초석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 본다.

■ 접수: 10월 31일 / 수정: 12월 3일 / 채택: 12월 7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강승혜 외, 『한국문화 교육론』(파주: 형설, 2010).

강현석·주동범, 『현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서울: 학지사, 2004).

강현화 외, 『한국어 교원을 위한 한국어교육학』(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강현화·이미혜, 『한국어교육론』(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권순희 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직장 생활 용어집』(서울: 경성문화사, 2013a).

_____,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 1, 2』(서울: 하우, 2013b).

_____,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1, 2, 3』(서울: 하우, 2012).

김현경, 『현상학으로 바라본 새터민(탈북이주자)의 심리적 충격과 회복경험』(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09).

박갑수, 『한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서울: 역락, 2013).

박영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서울: 월인, 2002).

신명선 외,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서울: 박이정, 2012).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정학 용어 대사전』(서울: 학지사, 2017).

2) 논문

권순희,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위상,” 『우리말연구』, 39권 (2014), 5~24쪽.

권오경,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 5권 2호 (2009), 49~72쪽.

김정숙, “통합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4권 3호(2003), 119~143쪽.

김주성,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태도에 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141쪽.

김하수·조태린, “한국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접근,” 『사회언어학』 제16권 1호(2008), 319~362쪽.

나영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검토,” 『민족연구』, 66권(2016), 24~45쪽.

문금현,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 방안,” 『새국어교육』, 76권(2007), 141~172쪽.

박갑수, “한국어교육의 현실과 미래: 한국어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국학연구총론』, 6권(2010), 37~72쪽.

박성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현황 및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133쪽.

박종갑, “남북한 주민의 의사소통 장애요인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51권(2007), 1~42쪽.

서은숙,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다문화(이주민) 통합 교육 방향,” 『윤리연구』, 97권(2014), 332~360쪽.

신미영,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한 개념·기능 영어 교수요목 설계: 한국 중학교 과정을 중심으로”(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250쪽.

심혜령,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지식 기반 어휘 제시 연구,” 『문법교육』 제19권(2013), 293~324쪽.

양수경,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172쪽.

이수정. 2011. “다문화주의가 통일에 말걸기.” 『KDI 북한경제리뷰』, 13권 10호, 62~78쪽.

이용승, “북한이탈주민 통합,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민족연구』, 66권(2016), 4~23쪽.

이윤희, “학령기 자녀교육을 위한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연구: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요구분석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114쪽.

전정미, “새터민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화행 교육 방안 연구: 거절하는 말하기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49권(2010a), 111~138쪽.

_____, “북한이탈주민의 화행 사용 양상 연구: 칭찬 화행을 중심으로,” 『한말연

- 구』, 27권(2010b), 245~272쪽.
- _____, “북한이탈주민의 사과 화행 사용 양상 조사,” 『거레어문학』, 45권(2010c), 235~260쪽.
- 정경일,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응실태,” 『사회언어학』, 10권 1호(2002). 253~274쪽.
- 조연주, “남북 언어통합에 관한 연령층별 의식조사연구,” 『현대북한연구』, 20권 3호(2017), 180~227쪽.
- 조완철·조위수,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발음·억양 교육 실천사례 특성 분석,” 『현대북한연구』, 21권 1호(2018), 208~241쪽.
- 조현용,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우리말연구』, 54권(2018), 213~251쪽.

3) 기타 자료

- 교육부, 한국어 교육과정(2017 개정), 교육부 고시 제2017-131호, 별책 43.
-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2016).
- _____, 국어문화학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남한 생활 표현 익히기 http://edu.korean.go.kr/servlet/controller.course.CourseUserServlet?p_process=viewpage&p_coursegubun=class&p_subj=1058&p_year=2017&p_subjseq=0001&p_endgubun=&p_userId=(검색일: 2018년 10월 10일).
- 국립국어원,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 <http://edu.korean.go.kr/dp/banner/pronounce/home.html>(검색일: 2018년 10월 15일).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customer_support/counselor_list.jsp(검색일: 2018년 10월 29일)
- 다음백과(검색어: 고난의 행군),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1g3611n0>(검색일: 2018년 4월 1일); (검색어: 외국인),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6a2472a>(검색일: 2018년 7월 17일).
- 문금현 외,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2005).
- 북한이탈주민 입국 인원 현황(2018년 9월 말 기준),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refugeesPolicy/status/lately/#self>(검색일: 2018년

10월 27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 과정,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refugeesPolicy/status/history/>(검색일: 2018년 10월 14일).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ystem/>(검색일: 2018년 10월 28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intro/sub01.jsp>
(검색일: 2018년 10월 15일).

서울서부하나센터, “지역적응교육 매뉴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1999>(검색일: 2018년 7월 17일).

정경일, “남한 정착 북한 출신 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 조사,” 문화관광부 연구보고서(2001).

통일부,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2018).

통일부·남북하나재단, “2018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메뉴얼”(2018).

통일시대 사람들,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남북 필수 용어집”(2013).

한국문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적응 방안 연구”(2011).

A Study on the Syllabus Design of Linguistic Accommodation Education for North Korean Migrants: To Link with Initial Intensive Education Program of Hana Center

Cho, Youn Chu(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nguistic accommodation education courses for North Korean Migrants in ter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o design practical syllabus. The two-sided feature of North Korean migrants' language as a Korean for national people and a Korean for migrants has become a stepping stone and hindered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 curriculum, rather than has achieved synergy effect between the two academic areas. Taking this situation into consideration, the study defines their language as 'Korean for Settlement Purpose' based on learner variables and learning purposes.

And based on the needs analysis and the comparison of the courses, this study designed five categories of education contents: culture, word and expression, pronunciation and intonation, language manners and

speech acts, activities and tasks.

The study is limited by the fact that no practical teaching-learning was performed, and that only the early phase of settlement was covered. However, in the situation which the educational and practical approach is lacking,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defines language education of North Korean migrants as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provides a pedagogical and practical syllabus. It is hoped that it would give some useful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Keywords: North Korean refugees, linguistic accommodation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education, Korean for settlement purpose, curriculum, syllabus, contents of education, syllabus design